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1.(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11일(수)부터		
담당부서	의사입법담당관 의사기록팀	**담당자**	김효영 사무관(044-300-7271) 구 민 주무관(044-300-7272)

세종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

- 노종용, 김동호, 김현미, 이순열, 김재형, 유인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 내달 15일까지 35일간 예정,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는 11일 제11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안신일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미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세종시민의 오랜 기대가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오늘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게 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가려내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종용·김동호·김현미·이순열·김재형·유인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